

주간

2015. 7. 20. ~ 7. 26.

전남농업정보

43
VOL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대파·오이 재배 동향 및 양념채소·엽근채소
가격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농식품부,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벼 피해 해충 '멸강나방' 예방 강화

정책동향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경계단계 하향 조정



전라남도
Jeollanamdo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3~10mm)보다 많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3~6월 대파 정식면적 7% 감소
- 오이, 7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증가, 8~9월 감소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 건고추, 대파

- 건고추 : 건고추 7월 산지가격은 이월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아 평년(5,964원/600g) 대비 보험세 전망
- 대 파 : 대파 7월 도매가격은 경기·강원지역 출하량 감소로 평년(1,143원)보다 높은 1,900~2,100원/kg 전망

▶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배추가격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 대비 상승한 8,000~9,0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월 대비 상승한 15,000~18,000원/18kg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무등일보, 남도일보)

- ▶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 ▶ 장성군, 미래농업 이끌 지역인재 양성
- ▶ 영광군 미생물배양실·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
- ▶ 진도군 '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 ▶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 식물검역 요건 완화
-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홍보에 추정 20억 활용기로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벼 피해 해충 '멸강나방' 예방 강화
- ▶ 밭 사료작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 ▶ 여름철 육묘장, '태양열 소독'으로 병해충 예방
- ▶ 양파정식기 실용화 눈앞!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경계단계 하향 조정

- ▶ 농업 6차산업화 품평회서 전남 11개 제품 선정
- ▶ 농업과 첨단과학기술의 만남 눈길...창조농생명과학대전 성료
-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완성을 위한 공영홈쇼핑 개국
- ▶ 수원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2019년 개관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의 옥수수 작황 상승한 반면 대두는 변화없으며 밀은 하락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장중 부셸당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다 작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에 하락 마감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연래 최고치를 기록 후 미국 우호날씨 전망과 기술적 매도로 인한 영향으로 약 2% 하락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우호 날씨 전망이 곡물 등급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며 하락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국제뉴스, 아시아뉴스통신)

- ▶ 완주군, 고소득 지역특색 콜라비 가공창업 진행
- ▶ 함양군 수동면 김동철 농업인 4억 고소득 화제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6. 18. ~ 8. 17.(2개월)
- 신청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9개)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포도
 - 폐업지원금(5개) : 체리,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대상 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판매기간 : (당초) 6. 1 ~ 7. 17 → **(변경) 6. 1 ~ 7. 31**
- 가입대상 : 콩 재배면적이 4,500m²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가입방법 : 농지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 올해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 시행
-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정부 50% 지방자치단체 30% 지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7. 20.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20)	전주 (7/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6,483	↓ 2.1	↓ 29.3
	고구마(밤)	10kg	34,200	36,800	36,000	33,000	33,293	↑ 3.6	↑ 2.7
	감자(수미)	20kg	26,600	26,600	29,850	22,300	22,100	↑ 19.3	↑ 20.4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630	700	678	581	738	↑ 8.4	↓ 14.6
	양배추	10kg	6,900	7,400	8,150	5,290	5,027	↑ 30.4	↑ 37.3
	오이(다다기계통)	15kg	49,000	28,333	23,667	33,000	38,642	↑ 48.5	↑ 26.8
	애호박	8kg	14,000	9,800	11,850	9,000	16,620	↑ 55.6	↓ 15.8
	토마토	10kg	22,200	20,200	16,300	14,750	18,723	↑ 50.5	↑ 18.6
	무(봄)	1kg	900	1,050	668	508	658	↑ 77.2	↑ 36.8
	당근	20kg	31,000	31,000	30,000	34,900	33,023	↓ 11.2	↓ 6.1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95,000	792,333	↑ 18.0	↑ 3.5
	풋고추	10kg	36,000	40,000	38,450	42,350	39,533	↓ 15.0	↓ 8.9
	마늘(난지)	10kg	48,400	48,400	39,900	34,000	38,300	↑ 42.4	↑ 26.4
	양파	1kg	1,150	1,110	910	464	736	↑ 147.8	↑ 56.3
	대파	1kg	2,180	2,260	2,463	1,045	1,404	↑ 108.6	↑ 55.3
	파프리카	5kg	12,600	13,000	14,800	15,550	19,250	↓ 19.0	↓ 34.5
	방울토마토	5kg	12,400	13,400	13,300	9,500	11,827	↑ 30.5	↑ 4.8
	수박	1개	13,600	15,000	13,650	16,000	15,373	↓ 15.0	↓ 11.5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6,800	66,800	67,800	92,750	81,450	↓ 28.0	↓ 18.0
	배(신고)	15kg	39,600	39,600	39,600	83,000	64,767	↓ 52.3	↓ 38.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20)	전주 (7/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53,667	-	↓ 3.9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0,000	355,933	↓ 4.5	↑ 18.0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8,400	8,000	7,878	↓ 2.5	↓ 1.0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904	6,878	6,458	6,502	6,200	↑ 6.2	↑ 11.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98	2,261	2,298	2,184	2,037	↑ 5.2	↑ 12.8
	닭고기	1kg	5,132	5,831	5,525	5,327	5,929	↓ 3.7	↓ 13.4
	계란(특란)	10개	1,927	1,937	1,945	1,975	1,796	↓ 2.4	↑ 7.3
	우유	1리터	2,552	2,548	2,548	2,549	2,310	↑ 0.1	↑ 10.5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7. 20.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199 천원	4,875 천원	4,430 천원	↑ 6.6	↑ 17.4
	거세	6,535 "	6,518 "	5,492 "	↑ 0.3	↑ 19.0
송아지 (6~7월)	암	2,687 "	2,573 "	2,010 "	↑ 4.4	↑ 33.7
	수	3,198 "	3,118 "	2,811 "	↑ 2.6	↑ 13.8
육우(600kg)		3,339 "	3,392 "	2,749 "	↓ 1.6	↑ 21.5
젖소수송아지(7일령)		250 "	250 "	17 "	-	↑ 1370.6
돼지(110kg)		474 "	463 "	407 "	↑ 2.4	↑ 16.5
육계(원/kg)		1,471 원	1,368 원	1,469 원	↑ 7.5	↑ 0.1
계란(원/특란10개)		1,232 원	1,214 원	1,389 원	↑ 1.5	↓ 11.3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500 원	-	↓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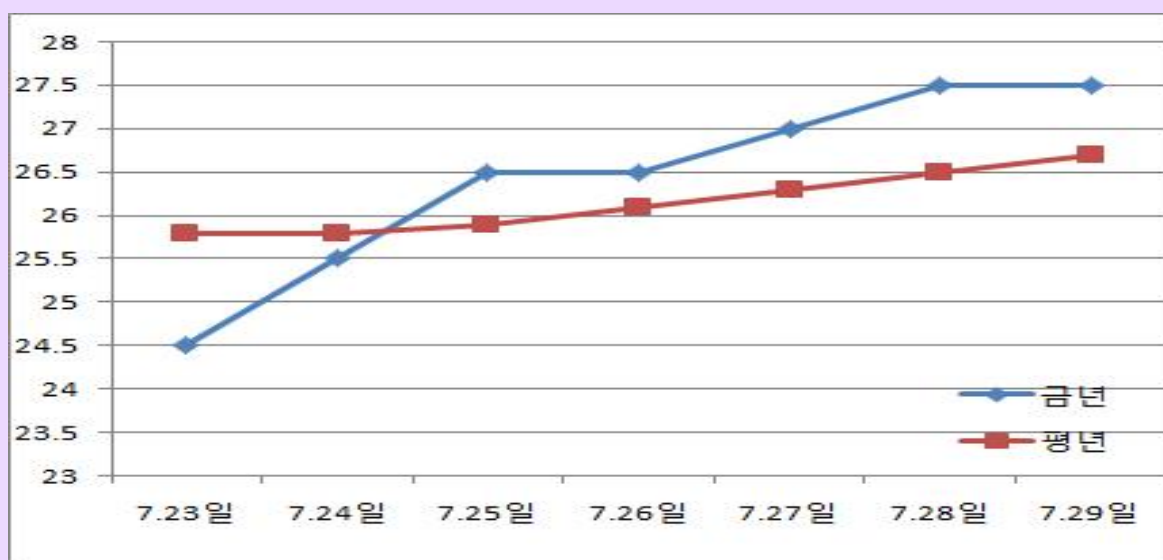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6.4	26.2	0.3	29.1	29.8	-0.7	23.7	23.4	0.2	5.5
7. 23.(목)	24.5	25.8	-1.3	26	29.2	-3.2	23	23.2	0.2	6.2
7. 24.(금)	25.5	25.8	-0.3	28	29.4	-1.4	23	23.2	0.2	6.2
7. 25.(토)	26.5	25.9	0.6	29	29.5	-0.5	24	23.3	-0.7	6.3
7. 26.(일)	26.5	26.1	0.4	29	29.8	-0.8	24	23.4	0.6	5.2
7. 27.(월)	27	26.3	0.7	30	29.9	0.1	24	23.5	0.5	6.1
7. 28.(화)	27.5	26.5	1	31	30.3	0.7	24	23.6	0.4	4.4
7. 29.(수)	27.5	26.7	0.8	31	30.5	0.5	24	23.8	0.2	3.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대파·오이 재배 동향

□ 3~6월 대파 정식면적 7% 감소

- 3~6월 대파 정식면적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름·가을대파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은 당근, 감자로 작목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7~11월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
-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신안군은 대파 재배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9월 정식의향은 최근 대파가격 상승으로 봄대파 출하가 완료된 포전에서 대파 재정식 의향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 증가할 전망이다.

□ 오이, 7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증가, 8~9월 감소

- 7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안성의 일부 농가에서는 가뭄 영향으로 정식면적이 작년보다 감소하겠으나, 대전광역시에서는 확대될 전망이다.
- 8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에서는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취청오이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일부 농가가 멜론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공주의 일부 토마토 농가에서 작목 전환이 있겠으나, 경북 상주에서는 작년 고온 피해로 정식을 10월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건고추, 대파

○ (건고추)

- 건고추 7월 산지가격은 이월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아 평년(5,964원/600g) 대비 보합세 전망

○ (대 파)

- 대파 7월 도매가격은 경기·강원지역 출하량 감소로 평년(1,143원) 보다 높은 1,900~2,100원/kg 전망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배추 가격은 고랭지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 대비 상승한 8,000~9,0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월 대비 상승한 15,000~18,000원/18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

- 지원조례 공포...풀뿌리 지역경제 활력 '기대' -

- 담양군은 14일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0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는 기존 식품위생법상에서 일정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까다로운 식품가공 시설규정을 완화해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만든 소규모 가공식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 적용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66㎡이하의 식품 제조시설에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표준 조례안을 준용했으며,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의 거리규정을 오염물질 차단으로 완화한데 이어 제조라인 분리구획은 선이나 줄로 구분, 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서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고 급수시설은 식수용 탱크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최형식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해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담양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05개 식품업체가 등록

된 가운데 91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전체매출 규모는 약 520억원으로 수출이 3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무등일보

■ 장성군, 미래농업 이끌 지역인재 양성

- 농업기술센터, 장성중 진로직업 체험교육 추진 -

- 전남 장성군이 지역의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소년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장성중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진로직업 체험학습을 추진키로 했다.
- 이번 진로직업 체험은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견문과 가치를 이해하고 향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체험교육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젖어있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2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농업기술센터 내 국화 삼목장과 최신 토양검정시설 등을 견학하는 등 미래 농업 발전 방향과 향후 직업 선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올바를 청소년상을 구현하고, 지역의 미래농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장성군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아동 정서지능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출처 : 남도일보

■ 영광군 미생물배양실·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

- 영광군은 최근 유관기관과 지역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실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 미생물 배양실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군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시설로, 272㎡ 규모에 배양실, 실험실, 저온저장실 등의 부대시설과 1t 규모의 멸균배양기 2대, 살균배양기 2대 등 장비를 갖추고 있다.
-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류의 미생물을 연간 150t 생산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는 물론 친환경농업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10억을 투자해 533㎡(가공교육장 258㎡, 가공시설 275㎡)에 건조분쇄실, 액상추출실 등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가공장비를 구축했다.
- 군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설을 가동해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따리 가득'이라는 공동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두 시설의 준공을 계기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함께 가공창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함께 실시해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남일보

■ 진도군 '팜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 부지화·포도·단호박 등 시설하우스 단지화·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
- 진도군이 시설하우스 단지화에 나선다.

- 진도군은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통한 '진도 행복 팜하우스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사업비 5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3만 5000m²의 시설하우스 단지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부지화, 포도, 단호박 등의 연중 생산 시스템으로 군민소득 5000억 달성을 위한 원년을 삼겠다는 전략이다.
- 특히 재해에 대비한 견고한 시설하우스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 강풍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시공, 각각의 특화품목에 맞는 하우스 단지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고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농업발전 4개년 계획과 연계한 규모화·단지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진도의 새로운 브랜드 상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의 향상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남일보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농식품부,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영국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신선가금육 등의 수입을 7월 14일부터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7월 10일 랭카셔지방의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었고, 7월 13일 정밀검사 결과 H7N7형 HPAI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 살아있는 가금(병아리,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신선 가금육(열처리제품제외) 등이다.
 - ※ 영국산 가금 및 가금육에 대해서는 '14.11.16일 수입금지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HPAI 청정성 회복여부를 확인한 후 '15.5.6일 수입을 재개하였음
-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해줄 것과,
-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소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 식물검역 요건 완화

- 호주 검역관의 한국 파견 검역 없이도 수출 가능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2015. 7. 14.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캠벨 얼리, Campbell Early)의 식물검역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산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때 호주 식물검역관이 한국에 와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현지검역이 올해부터 의무에서 선택요건으로 변경되었다.

□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된 국산 포도의 현지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25톤에 불과했던 이유는 호주 현지검역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었다.

○ 호주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위해서는 수출 시작 4주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 요청을 해야 하므로, 포도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첫 수출 성공 후 즉시 호주측과 협의를 시작하여 올해부터 현지검역 요건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종전에는 호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호주 식물검역관이 등록된 포도 선과장에서 직접 검역한 포도만 호주로 수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 검사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 도착 후에 수입식물검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양국 간 요건 준수, 위생 점검 강화 등 농민과 수출자의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요건 완화로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 증가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홍보에 추경 20억 활용키로

- 상반기 농식품 수출 30억弗…전년비 소폭 감소 -
-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매달 수출점검 -
- 해외 홍보활동에 추경예산 20억 활용 -

- 환율 영향에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상반기 농식품 수출 동향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은 30억2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했다.
- 농식품 최대 수출국인 일본과 2위인 아세안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일본 수출은 5억9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6% 줄었다. 엔저 영향으로 김치와 파프리카, 화훼 등 주요 수출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들기름이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면서 수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 아세안 수출은 지난해보다 7.2% 줄어든 5억1200만달러에 그쳤다. 음료와 쌀 등 농식품 수출은 증가했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환율 약세와 주요 수출품인 새털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 중국(11.5%)과 미국(4.6%), 유럽연합(EU)(18.9%)으로 수출은 증가했다.
- 중국은 유아용품 시장이 성장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며, 조제분유 등 관련 품목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인삼류와 음료, 삼계탕 수출이 늘고 있으며, 유럽은 커피 조제품, 김치, 새송이버섯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종류별로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토마토(10.4%)와 새송이버섯(5.8%), 밤(5.7%)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장미(-52.9%)와 김치(-14.9%), 파프리카(-10.0%) 등이 감소했다.
- 가공식품은 들기름(44.8%), 삼계탕(77.4%), 조제분유(59.1%), 맥주(13.6%), 음료(8.0%)등이 증가하고, 막걸리(-17.1%), 설탕(-13.2%), 고추장(-8.2%) 등은 수출이 줄었다.
-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 77억달러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를 구성, 매달 국가와 품목별 수출실적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 아울러 추경예산 20억원을 활용해 해외 미디어 매체를 통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를 확대하고 현지 판촉행사와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추진한다.

* 출처 : 아시아경제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벼 피해 해충 '멸강나방' 예방 강화

- 충청 · 전북 등서 집단 발생...전남농업기술원, 유충 방제 나서 -

- 전남도가 도내 벼 재배지에 멸강나방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 14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6월 중순경 벼 재배지의 문제 해충 중의 하나인 멸강나방 애벌레가 충청도와 전북 김제에서 집단으로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농업기술원과 관련기관에서는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생예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일반적으로 멸강나방은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경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으로 날개 길이가 40mm인 중형 나방으로 암컷 한 마리가 약 700여개의 알을 산란하며,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약 40일이 소요된다.
- 그 유충은 잡식성으로 집단으로 기어 다니며 벼를 비롯한 옥수수, 초지작물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 최근 멸강나방에 의한 전남지역의 피해는 지난 2013년 8월 상순에 순천, 화순, 나주 등의 친환경 벼 재배지역에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준 바 있다.
- 멸강나방은 어린 유충일 때 방제효과가 높다. 발생초기에 친환경 재배지역에서는 피마자유 추출물제, 고삼과 차추출물제의 혼합제

등 친환경 자재를, 일반재배지역에서는 델타메트린유제 등 31종의 등록농약을 교호로 살포하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 4월 하순에 강진과 해남에서 멸강나방 성충이 트랩당 2~6마리가 유인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견 즉시 초기에 철저한 방제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밭 사료작물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 전남농업기술원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작목 재배 순서에 관한 기술을 농가에 전수에 나선다.
- 9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역 기후에 적합한 양질의 조사료 최대생산 작부체계 기술을 개발해 축산 농가에 보급한다.
-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축산 농가 경영비에서 사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 비싼 수입 조사료 대신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를 사용해 가축 생산성 증대와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를 펼쳤다.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양질 조사료 최대생산 작부체계는 동계작물인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를 10월 하순에 파종하고 이듬해 5월 중순 수확한 후, 하계작물인 수수류(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을 5월 하순 파종해 7월말과 9월말에 2회 수확하는 연중 작부체계 시스템이다.

- 이러한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적용할 경우 ha당 최대 93t(건물수량 43t)이 생산 가능해 관행 조사료 작부체계에 비해 평균 24%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박상국 전남축산연구소 소장은 “연중 조사료 최대생산 작부체계 기술 보급 확대로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여름철 육묘장, '태양열 소독'으로 병해충 예방

- 하우스 문 꼭 닫고 7일~10일 두면 소독 효과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건전한 채소 묘를 공급하는 육묘장에서 여름철 고온기에 효과적으로 시설 내부를 소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다.
- 채소 육묘장은 건전한 묘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 약제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관리를 위해 육묘장이 비어있는 7월~8월에 태양열 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고온기에 하우스 문을 꼭 닫아 놓는 것만으로도 시설 내 온도가 55℃~7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곰팡이와 세균은 일반적으로 60℃에서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태양열만으로도 소독이 가능하다. 태양열 소독은 7일~10일 정도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 특히, 육묘장 내 상토 잔재물과 벤치 아래 토양과 자갈에서도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2차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소독 시 토양이나 자갈을 갈아엎어 주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태양열 소독은 장마가 끝난 7월 하순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하우스 문을 꼭 닫고 습도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더불어, 맑은 날 시설물의 천창, 측창과 출입문을 닫아 시설 내 온도를 올리면 곰팡이병이나 병원균, 해충 알 등을 죽일 수 있다.
- 육묘장에서 사용하는 집게, 트레이 등 다양한 농자재에 대한 소독도 함께 실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접목용 집게, 트레이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과산화수소 같이 육묘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독액에 담근 후 물기를 바짝 말리면 병원균이 죽는다.
- 쉽고 간단한 이 방법만으로도 채소 육묘에 문제가 되는 과일썩음병 같은 대표적인 세균병의 생장률도 크게 낮출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한경숙 연구사는 “여름철 고온기에 친환경적인 태양열 소독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어 쉽고 효과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양파정식기 실용화 눈앞!

- 형식승인 성능 검정 ‘적합’판정 받아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주)동양물산 등 5개 기관과 공동으로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양파정식기가 최종 형식승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것은 양파정식기 보급을 위한

판매와 구매 요건구비를 위한 인증절차로서 농업실용화재단이 맡아 진행하였다.

- 이번에 실시한 양파정식기 형식승인 검정 항목으로는 농업기계 형식에 대한 구조와 성능, 안전성 및 조작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하였는데, 성능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결주율이 2.9%로, 검정기준 3%이하에 들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기계 손상율도 2% 이하를 나타내 안정적 작업이 가능한 농업기계로 인정을 받았다.
- 양파정식기는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양파 재배과정 중 과다하게 투입되는 모종 정식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개발에 착수한 고성능 양파묘 정식 시스템으로, (주)동양물산, (주)죽암기계, (주)진성메카트로닉스, 경상대학교, 신미네유통사업단 등 5개 업체와 공동으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연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 도농업기술원은 양파정식기 개발과 함께 농업기계 실용화에 필요한 양파모종정리기와 육묘트레이, 전용상토 등 관련기자재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고, 지난해 10월 현장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다.
- 양파연구소 하인종 담당은 “양파정식기 현장 검증을 위해 금년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간 전국 순회 시연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생산과 임대사업기종 우선구매 자금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경계단계 하향 조정

- '15.7.15(수)일 18시부터 위기경보 「경계」 → 「관심」 단계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9월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 제한을 7월15일 18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지난 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발생한 이후,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남 영암지역에 유지되고 있던 2개 방역대가 최종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 이와 함께,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할 계획이다.
- * 위기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참고로, 지난해 발생 이후,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하였으며, 234호, 511만수를 살처분 하였고,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에 약 14만6천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평시 표준행동요령*에 따라 차단방역을 추진하되, AI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사후관리 강화, AI 바이러스

유입여부의 조기검색 및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에찰을 강화하는 한편,

* 폐사체·출하전·야생철새 검사 등 상시에찰, 농가 교육, 가상방역훈련(CPX) 등

○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 방향을 전환하여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 사육 및
질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시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등 “AI 방
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구제역 및 AI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특별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발
생원인 분석, 방역 취약사항 등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을 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재 발생 원인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어 AI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하에
농가별 사후관리에 충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 검역본부 중앙 기동점검반을 동원하여 발생농가 입식을 위한 현지
실태 점검을 통해 전실 설치, 축사 내·외부 소독, 매몰지 관리,
농가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재발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

○ 농식품부·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별 방역조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 끝으로,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 (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요청하였고,
-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6차산업화 품평회서 전남 11개 제품 선정

- 해남 성진영농조합 ‘키토산명품김치’ 등 전국 총 70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2차 6차산업화 우수제품 품평회’에서 도내 7개 업체 11개 제품을 포함해 전국 32개 업체 70개 제품이 우수 제품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품평회에서는 국내 대형 백화점과 홈쇼핑 바이어 등 유통전문가 29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전국에서 신청된 108개 제품에 대해 상품성 등 잠재 가능성이 높은 6차산업경영체의 우수 제품을 선발했다.
- 전남지역 우수 제품은 해남 성진영농조합 ‘키토산명품김치’, 장

성 백련동 편백농원 ‘편백경추목침’ 등 3점, 함평 코코허브 ‘발아현미인’ 등 2점, 순천 한솔영농조합법인 ‘우리콩두유’ 등 3점, 영암 참발효식품 ‘황칠나무식초’ 등이다. 특히 해남 성진영농조합 ‘키토산명품김치’의 경우 전국 70개 제품 중 2위를 차지했다.

- 선정된 제품에 대해선 기획 판매전 참가 지원, 유통전문가 코칭을 통해 제품을 개선토록 하는 등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 이에 따라 7월에는 ‘6차산업화 우수제품 기획 판매전’, 8월에는 ‘대한민국 향토제품대전’에 출품되고, 앞으로 유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 판로 개척 등 각종 판촉행사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지역 농업 6차산업경영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개소로, 이는 지금까지 현장코칭과 맞춤형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온 결과다”며, “이번 우수 제품 선정은 계기로 전남농업 6차산업화 제품이 지속적인 명성을 얻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업과 첨단과학기술의 만남 눈길…창조농생명과학대전 성료

- ‘농업, 과학기술을 만나 행복한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진행됐던 ‘2015 창조농생명과학대전’이 성료됐다. 특히 개막식이 열렸던 14일에는 농업인, 농산업체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농생명 산업이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촌진

홍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한국식품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창조농생명과학대전에서는 주제관인 ‘창조농업 창조마을관’에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미래 첨단 마을을 재현한 가운데 ‘6차 산업관’, ‘농산촌 행복관’, ‘광복 70년 농림과학관’ 등 7개의 테마관도 마련해 농업과 과학기술의 만남을 선보였다.

- 특히 ‘6차 산업관’에서는 6차산업의 개념·성공스토리와 지역별·유형별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농산촌 행복관’의 경우 농산자원을 활용한 전원생활, 피톤치드 및 산림치유, 농산촌 관광 등 힐링 콘텐츠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또 ‘광복 70년 농림과학관’에서는 농림분야 과학기술의 70년 변천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18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 기술을 전시한 ‘과학기술대상수상관’을 비롯해 ‘곤충산업 전시관’ 등이 특별관으로 마련됐다. 행사 중간에는 곤충체험, 편백나무 힐링체험, 드론체험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더불어 ‘제18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R&D 학술행사’ 등도 이어졌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창조농생명과학대전이 우리 농산업체와 농업인들에게는 국내외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첨단화·과학화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완성을 위한 공영홈쇼핑 개국

- 기존홈쇼핑보다 30% 낮은 판매수수료, 반송체계 개선 및 품질보증 강화 -

□ (설립 경과) 농축산물 판매비용 절감으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 직거래 형태의 농축산물 공영홈쇼핑 개국 추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전용 홈쇼핑 신설 필요성 의견 제시(농식품부)
- '14.8월 농수산·중기 전용 홈쇼핑 신설 계획 발표(미래부)
- 농협·수협·중기유통센터·전문가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영 홈쇼핑 추진 및 운영 방향 논의(관계부처 합동)
- 공영홈쇼핑 개국을 위한 자본금 총 800억원 출자(농협 45%, 수협: 5%, 중기유통센터: 50%)
- 공영홈쇼핑 설립 등기 완료('15.3.) 및 개국('15.7.)

□ (주요 특징)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판매 여건이 열악한 농축산물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농축수산물(50%) 및 중소기업 제품(50%) 전용 판매
- 기존 홈쇼핑(약34%)보다 약 30% 낮은 23%(4년차 이후 20%)의 판매 수수료
- 기존 홈쇼핑에 비해 반송 절차 개선 및 품질보증 체계 강화



□ (공영홈쇼핑 활성화 전제조건)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완결을 위해 생산구조, 산지유통 및 물류체계를 홈쇼핑 등 직거래 구조에 맞게 변화 유도

○ (생산구조) 소비자 맞춤형 농축산식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소품종 다량생산 체계 구축

-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품목을 특화하고 조직화·규모화 및 품질표준화 유도

○ (산지유통)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산지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농협, APC 및 농협물류센터 등 계통조직의 집하·상품화·분산기능 강화

○ (물류체계) 직거래에 적합한 효율적인 유통구조 형성을 위해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배송 체계로 변화

□ (기대 효과) 공영홈쇼핑 활성화를 통한 국내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촌경제 활력 제고, FTA 파고 극복 및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성공에 기여

① 생산자는 제값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유통생태계 조성, 박근혜정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

○ 거래 물품이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됨으로써 농산물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

- 농축산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판매 될 경우 유통비용률은 평균 40~45% 수준이나, 홈쇼핑을 통해 판매시 도매시장 경유 대비 약 15% 절감 가능

* 유통비용 절감율(도매시장 경유 대비) : 사이버쇼핑(15.4%), 직매장(20%), 농협도매(14.6%)

- 농산물 전용 홈쇼핑 개설시 농업생산액(44.3조원)의 약 1.2% (5,460억원)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농협), 홈쇼핑 판매액에서 도매시장 경유 유통비용 절감율(약 15%) 적용시 약 84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 가능

* 10개 직거래 경로 비교시('14년 기준) 공영홈쇼핑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액은 사이버쇼핑(1,493억원)과 농협 직접도매사업(1,470억원)에 이어 3번째 많은 수준

○ 판매자(공급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 향상

- 과일류의 농가수취가격은 판매가격의 약 50% 수준이나, 홈쇼핑 거래시 판매가격의 약 62%(선별·배송비 15% 가정) 수취 가능

② 6차산업 및 ICT융복합 제품 등 창조 농식품 맞춤형 유통채널로 기능

○ 6차산업 제품 등은 도매시장 등 기존의 유통채널에 부적합

- 공영홈쇼핑을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벤처 등을 통해 발굴된 신상품의 시범유통채널(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우수한 신상품발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 농축산물을 넘어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극대화 실현
- 지역특산물, 자연경관, 농업유산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 연계하여 농촌관광, 민박, 수확체험, 팜파티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③ 우리 농축산물의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수요처 창출

- 공영홈쇼핑은 대다수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대규모 수요 창출 가능
 - * GS 홈쇼핑 ‘산지애 사과’는 당도선별, 세척, 개별포장을 통해 인기상품으로 부상
- 경기부진에 의한 소비 감소 또는 과잉 생산 시 공영홈쇼핑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기여
 - * 공영홈쇼핑에서 소비가 위축된 고창 복분자 판매 계획(7월)

④ 우리 농축산식품의 수출 등 해외진출 촉진

- 공영홈쇼핑 방송의 해외 송출시 국내 농축산물 수출 확대 및 외국인의 국내 농식품 직접구매 활성화

□ (향후 계획) 공영홈쇼핑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추진

- 주산지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공영홈쇼핑에 적합한 농축산물 생산구조 개선 및 유통체계 구축

- 한식연, 농진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가공식품 및 6차산업 제품 개발 추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수원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2019년 개관

- 경기도 수원의 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국내외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농업계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 지난 2014년 9월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자리에 전시·체험관을 지어 농어업·식품산업의 역사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 등과 연계된 첨단 산업화된 모습,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가치, 생태·문화적 가치를 전시·교육·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규모는 대지 5만㎡(1만5290평)에 건평 1만8000㎡(5504평)로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9년 개관한다.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부지는 선사시대 농업유적은 물론 조선 정조 23년에 조성한 축만제와 서둔 및 1906년 농촌진흥청 전신인 권업모범장 설치 등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의 산실이 된 농업발전사가 집적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 지난 4월 사업계획서가 결정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

다. 이달 말까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른 설문조사 등 경제성 분석이 진행된다. 전시체험관은 본관과 어린이 박물관, 옥외 온실 등으로 꾸며진다. 본관에는 농업관, 첨단농업관,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라운지, 어업관, 식품관이 들어선다. 어린이 박물관은 농업·어업·식품 관련 정보가 전시된다. 옥외 온실은 유리온실의 경우 곤충 및 개구리·소뿔구리 등의 소동물 전시체험과 열대식물 및 세계 희귀식물을 선보인다. 또한 텃밭 농업 체험과 친환경 벼 농사 체험 등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발전사는 물론 어린이들의 직접 체험과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정보, 바이오생명산업,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농업 등 산업 전반을 다루므로 기존 농업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과 차별화된다”며 “국내외 농어업 및 식품과 관련한 과거·현재·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교육·체험을,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농·식품 산업 관련 종합 전시체험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의 옥수수 작황 상승한 반면 대두는 변화없으며 밀은 하락

작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 작황은 최근 강우중단으로 3주래 처음으로 상승한 반면 대두는 지난주 대비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두과종이 아직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겨울밀 및 봄밀의 작황은 하락한 반면 적색경질 겨울밀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수확진행이 최고라고 한다. 최대 옥수수 생산지역인 18개 주의 옥수수 작황은 69%가 좋음/아주좋음이며 이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한편 대두는 63%가 좋음/아주좋음이며 이는 5년평균인 6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대두과종은 전국적으로 일요일 기준 96% 완료되었으며 이는 6월의 습한 기후로 인해 정상적인 속도보다 뒤쳐진 상태이다. 과거 대두과종은 7월이면 완료되었었다. 이에 대해 RJ O'Brien의 고위 애널리스트 Rich Feltes는 “예상보다 이상적인 옥수수 및 대두작황과 다음주의 지속적인 곡물 작황개선 전망으로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고 언급하며 “여름 중순에도 이상적인 작황이 계속된다면 곡물 가격은 전형적으로 하방압력을 받을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Feltes는 뒤쳐진 대두과종은 대두 선물가격에 일부 지지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두농가는 3.4백만 에이커에 대한 과종을 완료했으며 이는 대체로 미주리, 일리노이, 캔자스 지역이다. 한편 일요일 기준 겨울밀 작황은 40%가 좋음/아주좋음으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습기관련 질병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오하이오 작물 보고서는 “도복(lodging), 적척병(scab), 보미톡신(vomitoxin)이 밀의 주요 질병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겨울밀 수확은 시즌 내내 과도한 강우로 인해 뒤쳐졌었으나 지난주 건조한 기후로 회복되었다. 캔자스의 적색경질 겨울밀 수확은 79% 완료되었으며 이는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수준인 반면 오하이오의 적색연질 겨울밀 수확은 단지 13% 완료되어 평소 수확속도인 37%와 비교할 때 뒤쳐진 수준이다. 봄밀 작황 역시 70%가 좋음/아주좋음으로 지난주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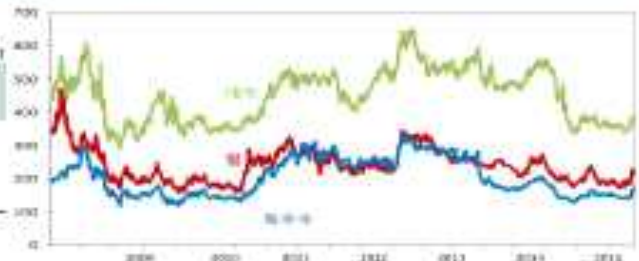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7. 15.(시카고 선물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 연례 최고치 기록 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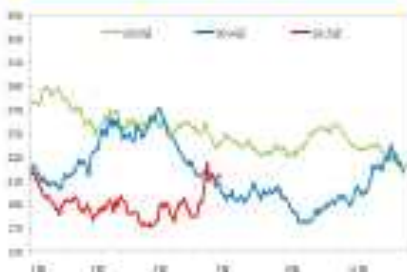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7.14)	전일대비	전일평균 ('15.6)	2014 평균
밀	214.36	▼0.5%	191	216
옥수수	166.92	▼2.2%	143	164
대두	381.76	▼0.6%	355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SW), 옥수수, 대두와 단풍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장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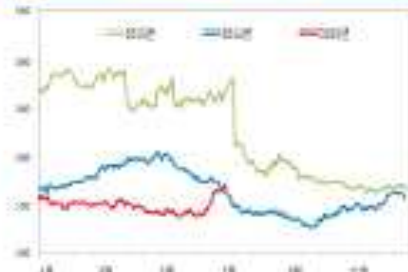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장중 부셸당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다 작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에 하락 마감함. 대미 달러 하락 및 과잉공급에 기대 이하의 빈약한 수출수요가 뒷받침함.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에이전시를 통해 흑해지역 보다 통당 50달러 비싼 미국산 밀을 대신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 235,000톤을 구매했다고 밝힘.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연례 최고치를 기록 후 미국 우호 날씨 전망과 기술적 매도로 인한 영향으로 약 2% 하락 마감함. 대거 매 계약자들의 7월 계약에 대한 만트 및 대미 달러 하락 그리고 미국 동부 옥수수재 건조한 기후 예보가 미 가격 하락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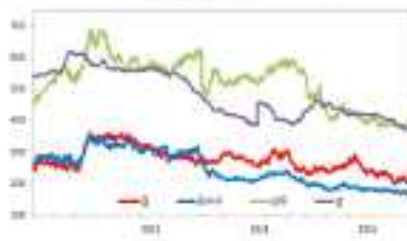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무호 날씨 전망이 곡물 공급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며 하락 마감함. 그러나 프메르츠은행의 애널리스트 Michaela Huhl은 금주 대미 달러의 약세면 중국은 6월, 남미의 한 대두 공급에 대한 영향으로 올해 가장 많은 8백만톤을 수입하였고 7월과 8월에도 많은 양을 수입할 것으로 계획하고있어 대두가격 손실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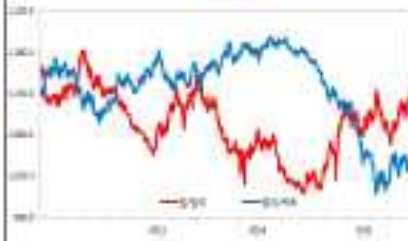
관련동향

▶ 주요 곡물 수출가격 강보합 마감.
▶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 전망, 예연 청정불안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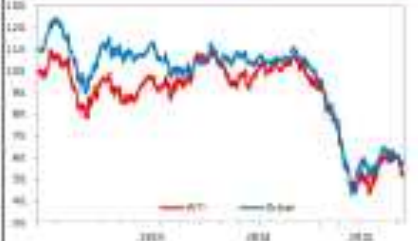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39	-		원/달러	1131.5	▲0.1%
	옥수수	198	▲1.5%		달러/유로	1.1006	▼1.1%
	대두	414	▲0.5%		WTI	53.04	▲1.6%
	밀	390	▲0.5%	국제유가	Dubai	56.25	▼2.6%

주) 1) 밀(US SSW Grade), 옥수수(US STC Grade), 대두(US Grade), 밀(Thailand 100% Grade B), WTI(미국), Dubai(중동)

2) 기준환율: '15.7.14(수출가격), '15.7.14(환율), '15.7.14(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회, 한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석유공사)와 일리어드 날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고소득 농업사례

■ 완주군, 고소득 지역특색 콜라비 가공창업 진행

- “다이어트에 좋은 쌈콜라비 맛보세요!” -
- 완주군에서 저칼로리 채소인 콜라비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상품화가 빠르면 9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 9일 완주군은 콜라비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가공공장이 최근 건축설계 및 사업 컨설팅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콜라비는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시켜 나온 품종으로, 뿌리 부분을 먹고, 단맛이 무보다 강하고 우수한 조직감으로 가공적성이 뛰어난 탓에, 저칼로리에 따른 다이어트에 탁월한 채소다.
- 1년에 2기작 재배(봄·가을) 및 노지수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특히 오는 9월경 가공공장 준공 후 선보일 콜라비 가공품은 ‘쌈콜라비(쌈무와 비슷)’와 ‘콜라비 피클’로 고급육류(소고기,오리고기 등), 삼겹살, 치킨 등과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 가공공장은 올해 전북농업기술원의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여기에는 현재 영농조합법인 ‘다원’의 이형섭(45) 대표의 숨은 노력이 컸다.
- 지난 2007년 귀농한 김 대표는 2012년부터 콜라비 재배(1ha)를 시작했고, 농업인 가공창업 보육센터인 거점농민가공센터(고산면 삼거리 소재)의 교육생에 등록해 교육 수료 후 이 되어 여러 가

공기술 교육을 수료하고 콜라비 가공품을 개발했다.

- 이후 2013년부터 거점농민가공센터에서 싹콜라비를 상품화해 직매장에 납품하던 중 규모화되고 제대로 된 콜라비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군 농업기술센터와 사업계획을 논의하던 차에 가공공장 착공으로까지 이어졌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틈새시장의 개척, 콜라비 과잉생산을 대비한 안정적 판로 확보에 대비 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국제뉴스

■ 함양군 수동면 김동철 농업인 4억 고소득 화제

- 경남 함양군에 양파작목 하나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어 화제다.
- 화제의 주인공은 김동철 농업인(57, 수동면 구라마을).
- 김씨는 16년 전부터 이 마을 일원 8ha에 양파를 지으며 한해 평균 20kg들이 4만망 이상을 수확, 4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특히 올해의 경우 비가 잦고 일조량이 적어서 전반적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습해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 빨리 잎이 마르는 등 악조건인 상황인데도 김 씨의 양파는 당장 보기에다 양파 잎이 마르지 않고 새파랗게 유지돼 단위면적당 품질 좋은 양파 생산이 기대된다.
- 김씨는 “수량이 많고, 품질 좋은 양파를 재배하려면 재배하는 두둑을 높게 해 습해를 줄이고, 퇴비사용 시 충분히 발효된 퇴비

를 사용해야 한다”며 “4~5월 건조기에 적정하게 관수를 하라”고 강조했다.

- 김씨는 특히 적정하게 물을 주는 ‘관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김씨는 “올해의 경우 함양군에서 처음으로 분수호스 설치지원을 해줘 골고루 물이 뿌려진 양파 포장에는 양파의 품질 향상과 수량이 높아져 10%이상 더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함양군은 올해 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분수호스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김씨 농가를 비롯해 총 19개 양파재배농가 20ha의 재배면적에 설치했다.
- ‘분수호스’는 작은 구멍이 많이 뚫린 호스를 적당한 간격으로 양파 식재 두둑 표면에 배치하고 그 끝을 막은 다음 압력수를 보내 구멍으로부터 물이 나와 관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한편 함양군은 오는 2018년까지 양파소득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양파농기계지원확대, 분수호스이용 양파재배, 유산균양파단지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함양양파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 특히 군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 양파를 대표적인 육성작목으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소득향상에 힘을 쏟는 등 함양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양파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6. 18. ~ 8. 17.(2개월)
- 신청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9개)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
 - 폐업지원금(5개) : 체리,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대상 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 지급단가
 - 피해보전직불금 : 대두ha/469천원, 감자ha/2,142천원, 고구마ha/45천원, 체리ha/2,600천원, 멜론ha/141천원, 노지포도ha/1,133천원, 시설포도ha/3,512천원, 닭고기kg/19원, 밤ha/410원
 - 폐업지원금 : 체리ha/33,140천원, 노지포도ha/58,980천원, 시설포도ha/87,410천원, 닭고기(마리)/561원

◆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판매기간 : (당초) 6. 1 ~ 7. 17 → (변경) 6. 1 ~ 7. 31
- 가입대상 : 콩 재배면적이 4,500m²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가입방법 : 농지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 올해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 시행
 -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정부 50% 지방자치단체 30% 지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43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